



전북의 발 밑에 '안심' 깔린다

전국 곳곳 '싱크홀' 사고 잇따라 발생... 도, GPR 정밀탐사로 사전 차단 나서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도 정밀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 정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예방적 대응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53건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34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7건(22.7%), 익산시 16건(21.3%)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 공동(空洞)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탐사 사업을 도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탐사를 실시하지만, 도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며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년까지 총 91.9km 구간에 대해 탐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 공동 388개소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74개소는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14개소도 상반기 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밀 지반탐사는 2026년까지 총 2,031km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40억6,000만원(도비 8억 1,000만원·시군비 32억5,000만원) 규모다. 현재 도내에는 자체 GPR 정비를

보유한 시군이 없어, 전문 업체에 의뢰해 고도화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959km에 대해 정밀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km 구간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91km 구간이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는 지하 20m 이상 굴착이 이뤄지는 공사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건설현장 가운데 '지하안전법'에 따라 점검 대상인 38개소 중, 굴착 깊이 20m 이상인 7개소에 대해서는 GPR을 활용한 지반탐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당 점검은 오는 5~6월 중 집중 실시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와 14개 시군, 8개 유관기관이 함께 탐사, 복구, 긴급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반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최우선"이라며 "지속적인 지반탐사, 노후관 정비, 그리고 대형 공사장 주변 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한국 여자유도 간판, 전북 역사관 '체육 소장품' 기증

정경미(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여자 유도 동메달 메달리스트가 29일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을 방문

해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증식'을 열고 기증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해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증식'을 열고 기증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통합 원광대학교' 확정

<원광대+원광보건대>

교육부 최종 승인... 제도적 특례 통한 혁신 길 열어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4년제·2년제 병행

"생명산업 중심으로 한 특화 교육 모델 구축할 것"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을 최종 승인받아, 2026학년도부터 통합 원광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4년제와 2년제 학위 과정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통합 모델로 선정된 이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작년 10월 교육부에 대학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제도적 특례를 통한 교육 혁신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5-167호)를 통해 통합 원광대학교가 일반대학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축적해온 교육 강점을 통합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4년제 교육과정은 2024년 신설된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과 연계해 생명산업체와 연구·개발·사업화(ER&BD) 일체형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년제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능동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4년제 및 2년제를 아우르는 생명산업체 연계 능동적 교육과정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2024년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산업 핵심 인재 배출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는 2025학년도부터 농생명·바이오계열, 디자인융합계열, 창의문화융합계열을 광역모집으로 전환해 학생 선택권을 강화했다.

2026학년도에는 의생명융합대학, 농생명융합대학, 공과대학, 공공인재대학, 경상대학 등 추가 광역화를 추진하고, 기존 원광보건대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도 학생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제 과정 입학자들은 심화교육을 원하는 경우 일반 편입 및 특별 편입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한편, 통합 원광대학교는 의료·보건 분야의 강점과 농생명·바이오 특성과 역량을 집약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기반으로 △진강하게 살고(의생명) △안전하게 먹고(농생명) △행복하게 누리는(생명서비스) 생명기초과학 및 바이오 융합 산업을 아우르는 지·산·학·병·연 복합 교육체계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성태 총장은 "기존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 적용으로 지역 맞춤형 실용 교육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6학년도부터 본격 출범하는 통합 원광대학교는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해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학생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도 생명산업 관련 전공 진입을 위한 브릿지 MD 과정을 개설해 진정한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서... 특별 공로상 시상·개막작 상영 등

배우는 깊이 있는 연기력과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두 배우는 영

화제의 문을 연 후에도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의 대화(GV) 및 다양한 공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 전에는 레드카펫 행사가 예

정돼 있으며, 영화제에 참여하는 국내외 영화인들과 주요 초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객들과 만남을 갖는다.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서막을 연 뒤에는 특별 공로상 시상과 우범기 조직

위원장의 개막석연, 개막공연으로 이어진다. 올해 특별 공로상은 지난해 12월에 별세한 전주 출신 한국영화의 거장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가 수상하며 대리 수상을 위해 유가족이 참석한다.

특별 공로상 수여와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공식 개막 선언 후에는 한국 경쟁부문 및 코리안시네마 부문에 초청된 배우 겸 가수 김푸름이 개막

공연을 통해 깊은 울림의 목소리를 선사한다. 이후, 심사위원단을 소개할 예정이며,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배우 이정현과 개막작 및 출연 배우들을 소개한다.

개막식 종료 후에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쿠키넨탈 '25>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투마니야를 대표하는 감독 라두 주데의 신작으로, 모든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장은성 기자

